

스와노이케 비지터 센터

3층짜리 건물인 스와노이케 비지터 센터에서는 땅 밑 깊은 곳에서 머리 위 별까지 시마바라반도의 풍부한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. 이 비지터 센터는 아이들에게 자연과학과 지역의 자연사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.

수십만 년 전, 이 지역은 화산 분화로 인해 용암으로 덮여 있었습니다. 시간이 흐르면서 스와노이케 단층에 의한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 남북의 절벽으로 둘러싸인 움푹 패인 땅이 생겼습니다. 사람들은 반도에 살면서 이 비옥한 토양에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했습니다. 에도시대(1603년-1867년)에는 지역 농민들이 사카이강에 관개댐을 건설하고, 스와노이케를 만들었습니다.

비지터 센터 1층에는 주변의 숲, 연못, 농장 모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이곳에서는 지역 사람들이 자연과 균형을 이루면서 이 지역에서 논밭을 발전시켜 온 모습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. 모형 중에는 지역의 새에 대한 전시물이 다수 있는데 버튼을 누르거나 서랍을 열어 새들의 울음소리를 듣거나 가까이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수생 생태계에 대해서도 현미경으로 보는 플랑크톤의 세계까지 상세하게 모형화되어 있습니다.

2층에서는 천체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. 별을 찾는 방법, 관찰 방법, 즐기는 방법 등이 그림으로 해설되어 있습니다. 또, 체험형 전시에서는 지구의 자전과 사계절이 생기는 모습, 달이 커졌다 작아지는 이유도 배울 수 있습니다. 3층 전망대에서는 주말마다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관람 이벤트가 개최됩니다.